

금주의 칼럼

불안의 시대

현대는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다. 지금까지는 생존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와 달리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찰과 지혜를 갖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폴란드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 박사는 과거를 '고체 시대', 현대를 '액체 시대'라고 표현했다. 과거에는 고체처럼 견고하게 유지되던 제도와 풍속, 도덕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액체처럼 끊임없이 흔들리고 해체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시대가 불확실할수록 개인은 더욱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성경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영생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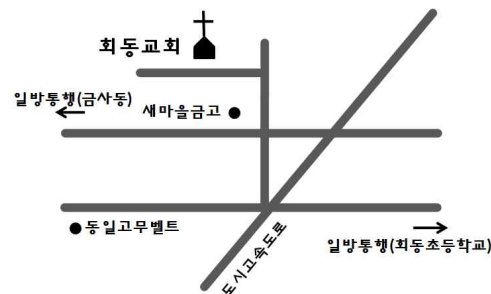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단지 성경 지식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읽어 내고 삶으로 살아 내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삶 자체가 복이 되며, 그 복은 불안을 능히 잠재울 수 있다.

기도와 물질로 돕는 교회

- 타지키스탄 (최**-서** 선교부)
- 국제기아대책(동래지역-선교부)
- 캄보디아 (최** 살롱회)
- 교경협의회(금정경찰서,선교부)
- 총신대학교 (박성규. 선교부)
- 네팔선교(차**-2남전도회)
- 부루키나파소(김** 3여전도회)
- 한국대학생 선교회(박**지-4여전도)
- 인도네시아(배** 2여전도회)
- 인도네시아(조** 1남전도회)
- 동부산노회: 미자립교회 지원 (선교부,본회계)
- 삼척소명교회(고진용, 권사회)
- 부산신학교(교단신학교,기도후원)
- 금정구 기독교 연합회(금정지역)

교회 집회 안내

예 배 시 간	집 회 시 간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기 도 회 오후 7:3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유 * 초 등 부 주일 9: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중 고 등 부 주일 9:00
새 벽 기 도 회 매일 5:30	청 년 부 주일 12:45



대한예수교장로회 회동교회

주일예배

오전 11: 00 / 인도 : 배영조 목사

입 레	입례송 / 기원
표 어 제 창	" 내가 기도하노라 " (빌 1:9)
찬 송	5장
교 독 문	32문 (시편 71편)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315장
기 도	최진수 장로
성 경 교 독	요한복음 5:10-18
찬 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 씀	은혜를 저버린 행동
찬송*봉헌	290장 / 봉헌
봉 헌 기 도	인도자
광고*교제	교회소식 / 성도의 교제
찬 송	620장 (1절)
축 도	인도자

○ 표시는 일어섭니다

● 담임목사: 배 영 조

- 장 로: 오정수 강병욱 최진수
- 선교사: 최강주*서현아
- 전도사: 허춘성 박옥주
- 지 휘: 김태호
- 반 주: 김정숙

2026. 9 . 13 / 제 48-37

2026 비전:

" 내가 기도하노라 " (빌1:9)

since 1979.

찬양예배 오후2시

인도: 배영조목사

경배와 찬양

[1:45-2:10]

입 레: 작은 십자가

찬 송: /

기 도: 박영수 집사 (다음: 김장우 집사)

성 경: 시편 68:16-19

특 송: (다음: 찬양대원중)

말 씀: 짐을 서로 지라(3)

기 도: 합심기도(2)

광 고: 인도자

축 도: 인도자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말씀 : 신명기 강해 / 인도: 배영조 목사

새벽기도회 새벽 5시30분

말씀: 요한복음 강해 / 인도: 배영조목사

[토 ~ 월 은 자유롭게 합니다] 1층 교육관

■ 본회계 부산은행 073-01-033878-7 회동교회

■ 선교 부산은행 112-2335-8311-00 최은경

■ 건축 새마을금고 9002-1699-9318-3 회동교회

9 월 봉사 안내

차 량	(오전) 김수안 오세영 / (오후) 김수안(온천) 박영수(재송)
안 내 / 식 당	남선이 / (주방) 이순점 이은심 / (청소) 강형순
중 식 봉 사	1주(6일) 2주(13일) 3주(20일) 4주(27일)
기 도	7,8구역 9,10구역 1,2구역 3,4구역
주 일 예 배	강병욱 최진수 오정수 강병욱
주 일 오후	박상태 박영수 김장우 김종섭
삼 일 밤	합심기도

46263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 5번길 6 (회동동) Tel. 522-8771, Fax. 525-7191

홈페이지: <http://hoedongch.org/index.html> [네이버에서 "회동교회"]

교회 소식

-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고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헌금은 예배전에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경배와 찬양: 오늘 오후 예배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으로 드립니다.
- 임직자교육: 오늘 점심후에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시간: 1: 05분 장소: 3층 교육관
- 구역모임: 9월부터 구역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열심히 구역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양식란: 가정사역에 대한 내용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숙독바람
- 안내 1) 제직회: 9월 셋째주
2) 월례회: 전도회 월례회 9월 셋째주
- 특송: 주일오후 특송은 자원자로 신청받습니다. (전도사님께 문의)
- 추석구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자 합니다..
구역장들은 대상자들을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다음주일까지)
제직회 선교 구제부에서 시행합니다.
- 전도팀: 9월부터 전도팀은 다시 전도 시작합니다.
1교구: 9월 18일(금) 2교구: 9월 29일(화)
- 기도회: 권사 기도회 모임. 9월 22일(화) 오전 11시 1층 교육관

기도제목

- 행사: 9월부터 하반기 교회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구역모임, 전도팀 전도
- 교우: 지병 질병 경제문제 등으로 힘들어 하는 교우들을 위해
- 선교: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자녀를 위해

9월 행사 안내

* 동래시찰회 행사: 8월 31-9월 11일	* 추석명절: 9월 25일, 및 연휴
* 구역모임: 9월 구역모임.	* 동래시찰회모임: 9월 중순
* 경배와 찬양: 둘째주	* 전도팀 전도: 첫째주, 셋째주 전도
* 전도회 월례회: 셋째주일	1교구/ 2교구
* 제직회모임: 9월 셋째주	* 노회: 장로고시 교육(교육1부) 9월 하순경
* 임직자교육: 9월 둘째주	장로고시(고시부) 10월 초순경
* 추석 구제명단: 구제부 주관	* 권사기도회: 매달 넷째 주 화요일
* 구역장모임: 9월 마지막주일	* 새가족부 : 세미나실, 점심 후 성경공부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 강형순 김은성*최승희 김중섭*장은미 김태호 김중렬*박광자 김미경 김충공*신금희 이영희 이은심 최춘은
- ◆**감 사:** 강형순 김장우 김중섭*장은미 김중렬*박광자 김충공*신금희 김태호 배영광 박위순 이영희 무명
- ◆**선 교:** 강형순 김장우*전만주 김충공*신금희 김중렬*박광자 김경애 김중섭*장은미 김은성*최승희 남선이 이영희
- ◆**건 축:** 강형순(2) 김은성*최승희 김중섭*장은미 김경애 김장우*전만주 김중렬*박광자 김충공*신금희 남선이 이영희

양육,친교 모임

프로그램	모임시간	모임장소
새가족부	주일 오전 12:40	1층 세미나실
구역장모임	주일 (매달 마지막주)	3층 교육관
돌봄교실	주일 오후예배시간	교육관/ 별관
기초교리반	상 . 하반기(문답교육)	1층 세미나실
성경강해	마태, 시편, 신명기	본당
친교(탁구부)	주일/ 오후예배후	별관

구역 모임 보고

9월 모임

구역	구역장	모인수	전도	헌금	성경	모인곳
1교구						
1	이순점	3		15000	3253	박영수
2	강형순	3		15000	8000	교 회
3	이은심	4		10000	7390	교 회
4	백운자				11035	
5	김경애				5345	
2교구						
6	이봉순	4		19000	2316	교 회
7	박광자	5			3630	김중렬
8	이현정	3		30000	10485	교 회
9	전만주				6015	
10	김중섭				1480	

생명의 양식

09-2 자녀 축복의 중요성(4) 창 27:30-37

-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은 하나님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신뢰가 결여된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생활에서도 편향성을 띄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인정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애를 쓰다가 율법주의, 신비주의, 비판주의로 나갑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무엇인가가 있음을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면서도 실제로 그에게 가까이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줄 것이라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자기를 찾아 주는 것만을 바라다가 그런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하면 얼마나 불안하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모의 축복을 넉넉히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성공 중독증, 일 중독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지나치게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면 됐다고 해도 만족하지 않으려 합니다. 과도한 일에 매달리고 특이한 상황을 연출하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지나치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다는 것!
그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반면에 부모의 축복을 넉넉히 받고 자란 경험!
그 경험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그를 진정으로 축복하십시오.
그 일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 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